

교회 - 1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18

자칭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곳들이 많이 있으며, 그 이름도 매우 다양하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관해 서로 다른 믿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고려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가 실제로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참 교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교파가 합쳐져서 참 교회를 이루는 것일까요?

‘교회’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으며,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서두의 구절에서 언급된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망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이 구절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부름받은 자들’ 또는 ‘선별된 자들’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에클레시아(ekklesia)’를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내어 놓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15:19). 본질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들임으로써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교회’라는 단어가 종종 회중이 모이는 장소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만약 회중의 실제 모임 장소를 설명하는 데 ‘모임의 집’이라는 표현이 더 널리 사용된다면, ‘교회’라는 단어 자체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기간 동안 ‘교회’라는 단어를 단 세 번만 사용하셨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서였고, 다른 두 번은 제자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오해를 해결하는 올바른 절차를 가르치실 때였습니다(마태복음 18:17). 이 단어가 다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2장 47절로, 오순절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삼천 명에 대한 기록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해 주셨다”고만 간결하게 기술한 구절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 진술 속에는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오순절 날 하루만 해도 삼천 명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그 후에도 “매일” 새로운 회심자들이 더해졌으나, 물 세례를 제외하고는 어떤 공식적인 입교 예식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이 모든 회심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설득력 있는 사역을 통해, 그들이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이 참으로 약속된 메시아임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그분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들이 서로를 세우기 위해 모이게 되자, 이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서 바울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즉 프리스킬라와 아퀼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 인사를 전합니다.

이 본문들을 통해 우리는 기독교 초기 시절, 규모나 위치에 관계없이 각 신자 모임이 교회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각 신자 모임은 복음을 통해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별 모임들은 교파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치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예루살렘 교회, 빌립보 교회, 로마 교회, 또는 어떤 경우에는 신자 중 한 사람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던 교회라고 불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일곱 교회가 언급되어 있으며, 이들은 소재한 도시의 이름으로 불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이 일곱 교회가 오순절부터 현재까지의 다양한 시대에 걸쳐 모든 신자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 이는 ‘교회’라는 단어가 주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그분과 그분의 사역을 섬기도록 하신 모든 곳의 모든 사람을 묘사하는, 또 다른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이 단어의 광범위하고 더 일반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셨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분”이라고 말할 때도 바로 이러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에 대해 다시 언급할 때도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입니다. 디모데전서 3:15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많은 지체가 합쳐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으며,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한 몸에 세례를 받아, 모두 같은 성령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입 방법

어떻게 하면 교회의 예비 회원이 될 수 있을까요? 즉, 예수님과 사도들이 세운 교회의 일원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앞서 인용한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주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점을 인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확히 어떻게 교회에 회원을 더하시며,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요?

간단히 말해, 성경은 교회에 나아가는 단계가 첫째, 우리가 죄의 저주를 받고 죽어가는 인류의 일원이며, 따라서 우리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회개하며 인정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64:6; 마가복음 2:17; 사도행전 26:20).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적인 구속주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오직 그분의 흘리신 피의 가치로 말미암아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38, 39; 16:31; 로마서 3:21-23; 5:1

그 다음으로, 구속주께서 흘리신 피의 공로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한 뜻을 행하기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갈 것을 요청받습니다. 이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헌신은 사람이 아니라, 또한 어떤 세속적인 조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이 헌신이 우리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누가복음 9:23).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단지 짧은 기간 동안, 혹은 평생 동안 사소한 쾌락이나 만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표현이 암시하듯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세 번이나 완전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을 때 사용하신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마태복음 26:33, 34).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뜻을 인정할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대신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 표현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추가적인 초청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청을 주셨을 때, 그분 자신도 희생으로 생명을 내려놓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갈보리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완성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30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는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희생적인 봉사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바칩니다. 기독교 시대 초기에 일부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지만, 모든 이가 문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방식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의 경우, 결과에 상관없이 섬기고 고난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실제로 그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 문제는 바울에 의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진 것”이라고 묘사된다(로마서 6:5).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오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다(에베소서 2:1). 그러나 그분의 흘리신 피의 공로에 대한 순종적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아담의 정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제물이 되는 자로서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라고 기록하며 이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2:1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음

로마서 6장 3,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의 죽음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와 함께 죽음에 묻혔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언급된 세례는 물론 하는 세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 그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세례’라는 단어는 ‘묻다’ 또는 ‘가라앉히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의 우리의 세례는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 안에 묻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죽음의 세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이 생각이 “참수당하다”라는 단어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참수당한 자들”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의 참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골로새서 1장 18절

바울은 이 점을 더 자세히 설명하며,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고린도전서 12:13).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주님께 이끌려,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 온전히 그분께 헌신하게 됩니다. 이
헌신이란 우리 자신의 뜻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신실하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10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을 더해 가시는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단계, 즉 회개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온전히
헌신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단계를 밟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친 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의 예비성도로 인정해 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앞서 인용한 본문에서 “세례를 통해 그분과 함께 죽음에 묻혔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6:4). 우리는 “새 생명으로” 기쁘게 걸어가고 있는가?

바울은 또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로워졌도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17). 우리 삶의 “과거의 시대”에 속했던 옛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진정한 매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사라졌습니까? (에베소서 2:3). 우리는 주님의 새로운 것들—즉, 신성한 봉사의 새로운 소명, 새로운 희망, 새로운 목표, 새로운 포부—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이 단계를 밟은 후, 우리의 옛 친구들과 친척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우리를 박해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은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예전과 같은 수준의 친밀감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덜 사랑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멈추지도 않겠지만,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께 전념한 사람들의 방식이 종종 멀리 떨어져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르지 않았던 것들, 곧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를 나타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며,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9, 10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분의 말씀에 담긴 놀라운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는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소명에 관한 말씀의 “깊은 것들”이 더 분명하게 이해되는가?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에 응답하셨으며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또 다른 증거를 얻은 것이다.

예수님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위에 대해 매우 확실한 확신을 주십니다. 먼저, 그분은 “나에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6:37). 그분은 몇 구절 뒤에 이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44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끄시는 능력을 느꼈다면, 이보다 더 큰 확신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걷고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 속 영적인 것들에 대한 우리의 기쁨; 육체와 세상의 옛것들에 대한 흥미 상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느 정도의 오해, 어쩌면 박해까지; 영적인 것들, 특히 우리의 하늘의 소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점점 더 커지는 감사함—이 모든 것은 우리의 헌신(봉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며,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들입니다.

물 세례

물 세례에 대한 질문은 자연스럽게 제기되며,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물로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 세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를 위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마태복음
3:11). 그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요청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시며, 오히려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13-15;
히브리서 7:26

요한의 세례는 유대 민족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온 민족을 대하고 있던, 곧 시내 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의 회귀를 상징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또한 이후 사역을 시작하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를 유대인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5;
누가복음 1:13-17; 사도행전 13:24,25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시며 그분은 단순히 “지금은 그렇게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3:15).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본보기입니다. 그분께
있어 세례는 희생적으로 죽으시겠다는 언약의

상징이었으며, 신실함이 인정된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리라는 소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물속에 잠기는 행위가 이 두 가지 생각을 얼마나 적절하게 묘사하는지 보라. 세례를 베푸는 이가 사람을 물속에 잠기게 할 때, 그 사람은 그의 손에 무력해지며, 물 밖으로 다시 들어 올려지지 않는 한 마치 죽은 자처럼 물속에 묻힌 채로 남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의 헌신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그분의 왕국의 위대한 미래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린다. 로마서 6:4,5; 빌립보서 3:10,11

그러므로 물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진정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상징이다. 물 세례가 구원을 주는 예식이라는 의미에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물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로 언약했으므로,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뜻의 일부임을 깨닫고 기꺼이 따를 것이다. 그 외의 어떤 태도라도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 조직

성경은 기독교 초기 시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이루어진 여러 지역 공동체들이 정교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언급하지 않으며, 이것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설계였다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조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모임은 질서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사역의 특권이 서로 다른 이들에게 배정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15; 고린도전서 14:40; 데살로니가후서 3:6,7; 디도서 1:5

초기 교회 조직에서 예수님은 만인의 머리로서 널리 인정받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스승은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요, 너희는 다 형제라”고 말씀하신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8). 바울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니, 그는 몸의 구주이시니라”고 기록했습니다(에베소서 5:23). 고린도전서 11:3에서도 그는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고 말하며 동일한 생각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아실 뿐만 아니라 그 기초이시기도 합니다. 바울은 “사람이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라고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11). 교회의 성도들은 또한 “하나님의 집안”이라 불리는데, 이는 “사도와 선지자들을 터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모퉁이 돌로 삼아 지은 것”이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19,20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성경에도 기록된 바 ‘보라, 내가 시온에 택하여 귀한 모퉁이 돌을 놓으리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라고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6). 요한계시록 14:1-4에서 사도 요한은 또한 예수님이 시온, 즉 완성된 교회의 “모퉁이 돌”이심을 확증합니다. 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오해를 고려할 때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마태복음 16:18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바위”가 될 것이라는 의미로 오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두 가지 다른 그리스어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러한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페트로스(petros)”로, “바위 조각”을 의미합니다. 반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페트라(petra)”라는 그리스어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 즉 말하자면 ‘거석’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방금 예수님께 “당신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참이었습니다(마태복음 16:16). 예수님은 이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역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 이름은 네가 작은 바위 조각, 즉 자갈과 같음을 의미한다. 네 이름의 의미와 비교할 때, 내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사실은 거대한 바위 덩어리, 즉 거대한 바위와 같으며, 교회는 나를 그 기초로 삼아 세워질 것이다.”

다음 달 『새벽 잡지(The Dawn)』에서는 “교회”라는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논의될 주요 주제에는 열두 사도와 교회의 다른 종들의 역할, 교회의 사명,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천상적 단계와 지상적 단계가 포함될 것입니다.